해방 후의 조국 형무소에서 다시 8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김시현의 나이는 79세였다. 일제하의 것을 합쳐 그가 옥살이한 것이 총 27년 8개월이었다. 80고령의 김시현은 노쇠한 몸이었으나 투지는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게 불굴이었다. 그래서 출옥한 지 석 달인 이해 7월 29일의 제5대 민의원民議員 선거에 고향 안동의 갑구甲區에 다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이때 안동갑구에는 무려 11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는데 백발노구의 김시현이 고성으로 외치며 곳곳을 누빈 끝에 노익장을 과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5대 민의원의 최고령 당선자가 되어 개원국회에서 의장을 맡게 되었다. 국회법에 의장을 선출하기 전의 회의에서는 최고령자가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김시현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두 번째 당선이 된 바였다. 그리고 김시현이 이때 79세로 당선되어 개원국회의 의장이 된 것은 그때까지의 최고령 기록 이승만의 75세를 4세나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의 제헌국회 때 75세로 의장이 되어 자기자신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개원국회의 사회를 맡아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최고령자로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어 예우를 받으면서도 김시현은 역시 지사이며 투사이지 현실정치에 적응하는 술수가는 되지 못했다. 어느 면에서는 이번에도 혼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의 표본과 같은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테러리스트의 천성에 가까운 본능을 버리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선 민주당의 장면張勉 정권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지나차게 자유로이 풀어놓는 민주주의를 하려다 망한 것이 장면정부인데 여기에도 그는 반기를 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짧은 수명의 5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때 한번은 박진목을 찾아가 거사자금 1천만 환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돈을 무엇에 쓰고자 하느냐고 묻자 ‘ 지금 온 친일파가 장면정권 밑에 다 모여 있네.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니 이 신분을 가지고 저놈들 국무회의장에 들어가 폭탄 하나 터뜨리면 모두가 종말을 고할 것 아닌가 ’ 하였다. 물론 이것은 실행으로 옮겨질 소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시현의 본심을 토로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김시현은 또 그가 몸담고 있는 국회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나라의 독립과 정부기구의 독립이라는 것이 민족적 혁명을 수반하여 이루어져야지 구악을 그대로 연장하여 신악으로 살려나가는 것은 기만이었다. 혁명적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치른 선거와 그러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라는 것이 본질에 있어 민주성장을 방해하는 거짓 민주주의 작용물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김시현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김시현은 사회주의자도 아니지만 의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짓된 민주주의 작용물의 하나로서의 국회를 환골탈태하여 발전시킬 수 없다면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시현은 1961년 5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인 4월초에 ‘ 내 고향 안동에 부치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개서한을 그 지역구에 보내고 있다. 이것은 안동에서 열리는 한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되었는데 사정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서한으로 대신한 내용이었다.

민주여론계몽협회 안동지회 주최, 4월 9일 오전 9시부터 안동중앙국민학교 교정에서 열리게 된 민의원 및 지방의원 귀향보고 강연회에 연사의 1인으로 지명되었음을 불초不肖 김시현은 광영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귀향하지 못하게 된 불초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게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등의 조건을 퍽이나 유감스럽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졸문拙文이지만 불초의 대신이라면 황송스런 말씀이나, 불초의 혈식血息이요 동지인 봉년峯年에게 불초 심정의 일단을 적어보내 회중會中 여러분의 앞에 대독시켜 드리는 황송과 흔쾌를 가지려 합니다.

동경東京、북경北京 등 먼 해외에서도 그러했고 일본 장기長崎감옥, 만주 신경新京감옥 등 철창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만 언제든 잊혀지지 않는 내 조국, 삼천리강산의 한 부분의 존재로 되어 있는 내 고향 안동은 향수가 짙어지는 곳이며 영고榮枯가 자못 걱정되는 곳입니다.

낙동洛東 천리의 푸른 강파江波가 조국 혈맥의 하나인 양이 안동의 복판에 관류貫流되고, 학가鶴駕 천년의 높은 산색이 조국 기상의 일부인 양이 안동의 복판에 서서 있다면 안동은 조국을 세운 곳, 조국을 지키는 곳, 이 안동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국애와 그 긍지는 실로 안동 사람들만이 느끼게 되는 하나의 자가도취의 일이라 할까, 남과 다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날 봉건제 학문의 처지라 하여 이제는 새로운 해석을 가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유학의 거종巨宗들인 퇴계退溪(이황李滉)와 서애西厓(유성룡柳成龍)와 대산大山(이상정李象靖)과 기타가 여기에 있었고 항일민족혁명의 거장들인 석주石洲 이상희(룡)李象羲(龍)과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과 추강秋岡 김지섭金祉燮과 기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가전으로 싸우다 너머진 정의전사의 피가 거리를 물들인 그 장렬한 안동 3、1투쟁사건이 다른데 아닌 여기에 있었고, 일제의 토지겸병土地兼倂과 가혹한 소작착취에 항거하여 일어선 그 장렬한 풍산 소작인 쟁의小作人爭議 사건이 다른데 아닌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산東山 유인식柳寅植을 교장으로 한 협동학교協東學校가 우리 신흥 민족교육의 선구자였다면 오늘에 있는 초등、중등、고등의 모든 안동교육기관은 이것이 모두 협동協東의 일을 이은 오늘의 민족교육 부대가 아닐 수 없으며, 전일의 우리 안동을 일러 ‘ 영남嶺南의 웅부雄府, 사대부士大夫의 원림源林 ’이라 했다면 오늘의 우리 안동은 ‘ 조국 성좌星座의 별 하나, 항쟁하는 민주 전사들의 고향 ’으로 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6월과 안보의식

權 海 兆
편집위원

나는 사실 군에서 평생을 보내고 나온 사람으로서 늘 군생활과 관련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한 나로서 6월이 되면 전쟁과 나라의 안보에 관한 상념에 잠기곤 한다.

그런데 사실 작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환경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이 나의 시각이다. 한반도 주변 중국과 일본의 강대국으로 재등장, 작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진행된 미국의 정권교체와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최근 북한의 마사일 발사와 대남 강경정책으로 말미암은 남북관계의 경색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많은 국민은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의 의식조사에서 57%가 6、25전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64.2%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장차 우리의 위협국을 미국、일본、북한 순으로 보고 있어 참으로 그러한 국가 안보의식이 걱정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지탱해온 우리의 안보축이 무너지고 있다. 현재 우리 안보의 축은 예비역을 포함한 국군,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국민의 안보의식이다. 지난 10여년간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히 되고, 국민의 안보의식도 감소되었다. 예정된대로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한미동맹도 약화되므로 국가안보 의식의 제고와 안보역량의 총집결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로 국민에게 안보차원의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주변에 대국이 등장하면 거의 전쟁과 정변을 겪었다. 중국에 한漢나라가 등장한 후 고조선이 망하였고, 당나라 등장 후에는 고구려、백제가 망했다. 원나라 등장 후 거란、몽고의 30년 침략이 있었고, 20만의 젊은 남녀가 끌려갔다. 명나라 등장 후에는 고려가 망하고, 청나라 등장 후에는 병자호란에 5만의 젊은 여자가 잡혀가 늙고 병들어서는 환향녀還鄕女로 돌아왔다.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자 임진왜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초토화하고 10만의 유학자와 기술자를 끌어갔다.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이 성공한 후에는 한일합병의 치욕을 당했으며, 36년간 식민지배로 창씨개명創氏改名과 67만의 젊은이가 강제징용되고 20여만 여성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가는 일을 당했다. 이 모든 치욕의 역사가 위정자들의 국제 감각 부족과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았고 국민의 단결력 부족이 빚은 바였다.

월남공화국의 패망 교훈도 중요하다. 당시 월남은 미군이 넘겨준 세계 최신 장비를 보유했지만 미군 철수 2년 만에 맨발에 소총으로 무장한 월맹군에게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당시 월남에는 향락주의와 위정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평화민족주의를 위장한 월맹의 간첩이 월남의 곳곳에 침투해 있었다. 또한 근래 중국과 일본은 경제군사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고, 역사의 왜곡과 자체 미화로 중고생들에게 역사교육을 강화하며 애국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교육을 필수로 하여 모든 공직시험에 포함시켰다가 최근에는 중고생의 역사교육마저 선택과목으로 하여 등한시하고 있다.

둘째로 한미동맹의 강화문제이다. 앞으로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게 된다. 양자, 다자간의 안보협력과 동맹이 필요하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피로 맺은 혈맹이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켰고,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하고, 6、25전쟁에서 공산침략을 저지하고, 지난 50년간 우리의 안보를 지원하며 경제발전을 도왔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공고한 연합군으로서 지난 20여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침략의지를 억제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독일을 통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미국이 했으며, 일본도 2차 대전의 적국인 미국과 손잡고 미일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와 통일을 위해서도 중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는 국민에게 대북필승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북한의 적화야욕은 변함이 없다. 북한에서는 4월 9일 제3기 김정일 체제가 시작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강성대국, 선군정치를 강화한다.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온갖 전략전술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빈곤과 폐쇄된 북한체제보다 우리는 월등한 자유민주체제로 세계 13위의 경제력과 우수한 인력자원에 잘 훈련된 국군과 한미연합군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성급하게 헐벗고 굶주리는 적화통일이 아니라, 늦어도 우리 가족과 자손이 행복하게 잘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의 평화적인 통일이다.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술책에도 말려들지 말고 유사시 북한에 대항할 필승의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안보관이 해이되고, 국가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 3월 세계야구선수권대회 후 김인식 감독이 ‘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 ’고 했듯이 경제도 좋지만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천하가 아무리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오는 법이다. 천하수안天下雖安 망전필위忘戰必危인 것이다. 일찍이 영국 전략가 리들하트도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 하였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도 ‘ 군대는 100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 하루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 하였다. 이제 국군장병, 예비군은 물론 기업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망상의 동경심을 버리고 치욕의 역사 교훈을 상기하여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는 절박한 각오로 총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